

미래전략실 주간브리핑 (2017.5.29)



중국, '일대일로' 넘어 '일환(북극)'으로

- 칭화대 리시광 교수, 일대일로 관련 포럼(5.20)에서 '중국은 일대일로에 그치지 않고 북극개발을 추진할 것'이라며 '일대일로'(One Belt, One Road)에 이어 '일환'(One Circle)이라고 할 만하다'라고 언급
- 리시광 교수는 중국의 대표적 경제학자로 '일대일로'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자 중 1인
- 시진핑 주석, 미-중 정상회담을 위한 미국 방문길에 북극이사회 의장국인 핀란드를 먼저 방문
- 양국은 '북극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북극 개발 협력'에 합의
- 귀국길에는 알래스카에 방문하여 빌 워커 주지사와 면담, 워커 주지사는 중국으로 LNG를 수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([관련 기사](#))

시사점

- 일대일로 추진 과정에서 **대 러시아 관계 개선**도 중국의 적극적인 북극 투자 확대 배경이라는 시각 존재
- 중국의 적극적 움직임은 우리나라가 수립 중인 '제2차 북극정책 기본계획' 기조에도 영향 가능성



스위스, 국민투표로 신규 원전 건설 금지 결정

- 스위스는 5.21 국민투표를 통해 **신규 원전 건설 금지**를 결정(58.2%가 금지에 찬성)
- 현재 스위스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전체 발전의 약 35%를 차지
-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독일에 이어 친환경 발전(수력, 풍력 등) 확대에 주력
- 이번 투표로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2020년까지 16%, 2035년까지 43% 감축하는 안도 통과([관련 기사](#))

시사점

-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서유럽을 중심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낮추고자 하는 흐름이 명확
- 지진 발생으로 인한 **원전 안전성에 우려**가 높아진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 대책 등과 맞물려 **새로운 에너지 믹스(energy mix)**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



미국 트럼프 행정부, 알래스카 북극유전 개발 확대 시사

-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제출한 예산운영(안)에 **알래스카 동북부 북극유전 개발 계획** 포함
- 특히 현재 채굴이 금지되어 있는 **북극국립자연보호구역(the Arctic National Wildlife Reserve)**에 대한 개방을 통해 **향후 10년간 약 18억달러의 추가 예산을 확보**한다는 계획
- 현재 북극 석유개발은 원유유출과 기후변화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
- 트럼프 행정부는 석유자원 연안개발 확대, 환경보호청(EPA) 예산 30% 삭감 등 개발 위주 정책 기조 지속([관련 기사](#))

시사점

- 미국의 북극개발 강화 기조는 북극이사회 의장국 **핀란드의 환경보호 강화 움직임과 배치**
- 러시아에 이어 미국의 북극 에너지 개발이 가시화될 경우 다른 북극권 국가에도 영향 전망